

# 전라도 '말 맛' ... 거시기가 거시기 해서 거시기 해브렀구만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전라의 말들

손승승 지음

진도 출신 송가인이 한 예능 프로그램(JTBC '아는 형님', 225회)에서 영화 대사를 전라도 사투리로 읽는 내용이 있다. 영화 '내 머리 속의 지우개' 가운데 주인공 수진의 대사다.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라고 말하며 소주를 마신다. 송가인은 이 대사를 "이것을 마셔블른 우리는 거시기여"라고 사투리로 말한다. 재미있는 말에 출연자들은 폭소를 터뜨린다.

전라도 말 가운데 '거시기'라는 어휘가 있다. 뭔가 생각나지 않을 때 전라도 사람들은 '거시기'라고 표현한다. 알고 있는데 순간 떠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거시기'로 대체를 하는 것이다.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 기본 상태일 수도 있고 전체 맥락을 설명할 때도 골짜기 쓰인다.

그러나 지나치게 '거시기'를 남발하면 자칫 말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미디어에서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다. '거시기'가 '거시기' 해서 '거시기' 해브렀구만 같은 것이 그런 예다.

전라도 사투리의 대명사는 '거시기'라고 할 만큼 일상에서 자주 쓰인다. 그러나 전라도의 사투리는 무궁무진하다. 일상에서 유심히 살펴보면 구수하고 재미진 말들이 차고 넘쳐난다.

'아무튼, 드림'과 '고마워 책방' (공저)의 저자 손승승이 펴낸 '전라의 말들-이것을 읽어블른 우리는 거시기여'는 전라도 말맛을 소개하는 책이다. 화순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사는 여성으로 그는 "전라도에서 산 시간과 서울에서 산 시간이 거의 같아지는" 지점에 도달했다.

그가 이번 책을 쓰게 된 것은 "오랜 시간 책방에서 일하며 기어이 말을 다루는 사람으로 살게 되니 말의 힘과 아름다움을 더 선명히 느꼈기 때문이다. 문장 100개와 그에 따른 단상 100개가 담긴 결과물은 전라도 사투리의 말맛을 오토이 담고 있다.

서울에서 사용하는 말을 표준어라 하고 지역의 말은 사투리라고 한다. 수도 서울을 중앙으로 상정하고 지역을 지방으로 구분한 탓에 언연중 사투리에 대한 편견이 생겨났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고유의 토박이말이 있다. 저자는 "지역의

이것을 마셔블른 우리는 거시기여.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 (JTBC) 225회

"아야 아야 아야 날 새굿다!"

기아 타이거즈 견제구 구호

역사와 문화가 스며든 말이며 제각각 다른 팔도 사투리는 우리 언어의 다양성을 보여 주기도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과 같은 주5일제 정착되기 전에는 토요일 오전에는 등교를 했다. 온전한 '공일'이 아닌 '반공일'이었다. 전라도 사투리로 '반공일'은 '반갱일'이다. 저자는 제2회 전라도 사투리 경연대회 대상 수상작 '행숙이의 일기'에서 '반갱일'에 대한 단상을 떠올린다. 이념과 관련된 단어가 아닌 절반반 비어 있다고 해서 전라도 사투리로 '반갱일'이 된 것이다.

저자는 목포 출신 가수 김경호를 좋아한다. 어려운 곡을 소화해내는 가창력, 예능에 출연해 구수한 사투리를 구사하는 모습이 좋다. 목포 출신인 김경호의 말은 눈을 감고 들으면 이웃집 아저씨가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다. ("허벌나게 이것도 다섯 개가 넘어요. 징하니 겁나게 허벌나게 허벌나게 오라지게."-예능 MBC '라디오

"그리고 순창이 아니라 순천이라고 내가 몇 번 말했다이."

"알았어, 새끼야. 순천이나 순창이나.

나한테는 다 전라도는 광주고 경상도는 부산이야."

"염병 그라픈 느그는 용산이나 일산이나 같냐?"

신천이나 신촌이나 같냐고.

그리고 순천은 전남서 광주 다음으로 큰 도시여.

전남서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드라마 '응답하라 1994' (tvN) 3회

"허벌나게 이것도 다섯 개가 넘어요.

징하니 겁나게 허벌나게 허벌나게 오라지게."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 (MBC) 360회

던 소리가 앞쪽 천장에서 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홍남'이 '송남', '홍악하다'가 '송악하다'로 발음되는 건 그런 연유다.

전라도 사람들 특히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말 가운데 '권 있다'라는 어휘가 있다. 호감이 간다는 뜻이다. 조정 시인의 '그라시재라, 서남 전라도 서사시' (이소노미야, 2022)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이목구비가 뻗듯해도 심겁게 생긴 사람이/ 흔하 있는디 그 아집은 권이 딱 찢듯가만" 저자는 "기인 있다"라는 말이 줄여서 '권 있다'가 된 게 아닐까 추정한다. 당길 기(耜), 사람 인(人)을 써서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음을 뜻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입에 달고 살았으면서도 못 신는 사투리도 정말 어쩔 수 없이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은 독자님의 어깨를 살짝 밀며 '아따 쪼개 이해해 주씨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유유>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2024 신춘문예 詩" 깊게 읽기

민용태·박태만 지음

신춘문예 시조엔 많은 문청들이 설한다. 오랫동안 같고 닮은 작품이 당선될지 모른다는 기대와 흑여 울해도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문학에 있어 신춘문예가 상징하는 의미와 효과는 일반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신춘문예 마감과 맞물려 전국의 문청들이 중앙 일간지를 비롯해 지역 일간지 신춘문예에 투고를 했을 것이다. 문학을 업으로 삼은 이들뿐 아니라 학창시절 문인이 꿈이었던 이들에게 신춘문예 시즌은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시인인 민용태 고려대 명예교수와 박태만 시인이 공동으로 펴낸 "2024 신춘문예 詩" 깊게 읽기"는 올해 신춘문예에 발표됐던 일간지 신춘문예 당선작과 신작시를 담고 있다.

광주일보 엄지인 시인의 당선작 '파랑'과 신작시 '원룸'을 비롯해 동아일보 한백양 시인의 '원편'과 '브라운닝', 경향신문 맹재범 시인의 '여기 있다', '일요일' 등 모두 11개 신문의 등단작과 새로 쓴 시를 만날 수 있다.

저자들은 광주일보 당선작 '파랑'에 대해 "이 시는 읽을수록 시 쓰는 기법이 아주 자연스럽고 신선하지요?"라며 "여성 시인이 가진 특유의 섬세함이 돋보이지요? 우리는 이 시를 통해 시적 전개 기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라고 평한다.

한편 책 뒤편에는 '신춘문예 시 비평'이라는 내용도 실려 있다. 신춘문예에 당선되는 비평이 따로 있을까 싶지만, 새겨들을 법한 내용도 있다.

민 교수는 너무 짧거나 길어서 안 되고 아이러니 수사법의 적절한 활용, 기발한 은유나 상징을 창출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지식과감성>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데미안 프로젝트

정여울 지음

독일 문학의 거장이자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헤르만 헤세의 대표작 '데미안'은 주인공 싱클레어와 데미안의 우정을 바탕으로 성장 과정 중 겪게 되는 시련과 극복, 깨달음을 통해 '참다운 나'에게 이르는 과정을 성찰하는 고전이다.

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 사회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으며 오늘날까지 세계는 물론 국내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문학책으로 꼽힌다.

'데미안' 하면 떠오르는 또 한명의 작가 정여울이 신작 '데미안 프로젝트'를 들고 찾아왔다. 20년 간 전국의 도서관이나 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된 데미안 강의를 정리한 책이다.

'데미안'을 읽고 또 읽는다는 작가는 읽을 때마다 스스로 조금씩 강인하고 당당하고 집착해한다고 이야기한다. 단순히 책을 읽는 활동을 넘어서 자기 안의 데미안을 직접 찾아 나서고 상처받더라도 금방 일어서도록 만드는 힘을 발견하곤 한다.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오세요, 당신과 나의 데미안 북클럽으로'에서는 '데미안'을 통해 내 안에서 아직 울고 있는 내면아이를 만나 내가 모르는 그림자를 깨닫고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나 자신의 더 큰 잠재력을 향해 정진하는 과정을 담았다.

2부 '함께해요, 강철 같은 영혼의 단련을'에서는 아직 만나지 못한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누구나 데미안이 될 수 있음을 독려하며 인생에 한 번쯤 찬란하게 빛나는 멘토 데미안을 만나보라고 권한다.

"데미안 프로젝트"는 아직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나의 숨은 잠재력을 발견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은 지금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예고의 두꺼운 장벽에 가려져 있습니다. 예고의 장벽에 가려 보이지 않는 아름답고 눈부신 셀프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 '데미안 프로젝트'의 꿈이기도 합니다."

<크레타>1만68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일본의 전쟁범죄

김재명 지음

일본 극우나 뉴라이트 세력은 한반도 침략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논리를 폈다. 조선반도가 일본에 흥기와 같은 위치에 있던 '한반도 흥기론', 일본 전쟁범죄가 '부득이하게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은 일본 교과서에 실리면서 반발을 일으켰다. 국내에서도 친일 공범론이나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교학사 파동'이 불거지면서 교육·역사계는 수차례 혼란을 치러 왔다.

이 같은 국내의 역사 왜곡에 저항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단순히 그들의 생각을 반박하기보다 명확한 사료나 근거를 갖고 '논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국제분쟁 전문가로서 민족 독립과 분단 극복을 말해온 김재명 작가가 펴낸 '일본의 전쟁범죄'는 잘못된 뉴라이트 역사관을 비판하는 책이다. 서울대 철학과를 나온 저자는 여태 '시리아전쟁', '오늘의 세계분쟁', '국제분쟁과 국제기구' 등 분쟁사를 다뤘었다.

책은 신진일파로 명명되는 뉴라이트 사관을 정면 겨냥하며 이를 '근거 있게' 비판한다.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와 관련된 숨겨진 전말과 당대 현실에 대해서도 꼼꼼히 들여다 본다.

저자는 전쟁제 파시즘이 낳은 괴물인 도조 히데키와 전범 처벌을 교묘히 비껴간 히로히토 일왕, 이시이 기관의 수괴 이시이 시로 등 일본 전범들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잔인했던 731부대의 엽기적인 만행과 '악마의 의사'들이 벌인 파렴치한 행동도 사료를 통해 집중 조명한다.

이외에도 일본군의 공식 기록물인 '진중일지' 등을 바탕으로 본 군부대의 이동 및 작전훈련, 위안소 설치 문제, 잔인했던 난징 학살과 신진일파의 토지조사사업을 들여다 본다.

<진실의힘>2만7000원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 예능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4년 12월호

2024년 11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10주년

## 광주 미디어아트 빛나고 있나요?

GWANGJU City of Media Art | unesco

옛과 함께  
함께 여행

## 황금박쥐 항일정신 빛과나비

기획-예술과 함께 송년

## 한국화단 두 거장, 수십 년 만의 귀향 특별전

'오지호의 빛과 천경자의 환상'을 만나다

에향 초대석

'역사를 역사답게'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 **황현필**

"기억하는 자가 사라지면 역사는 왜곡됩니다"

에향 창간 40주년, 남도투어@

그곳에 가고 싶다 **전남 예술여행**

해외문화기행@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우스 뮤지엄' 폐기 구겐하임 컬렉션

문화 화제-드라마 '정년'이 신드롬 '정년'이 불러낸 여성국극 '정년'과 함께 든 앙림동 역사문화마을

승년 기획 2024 문화계 결산

박찬 감독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황인 예술가와 친구들@

감성 충만, 들의 연금술사 전국광